

월간 **내일**

LIGHT UP!  
내일을 밝혀요!

취  
위  
밀  
착  
업  
케  
어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선임연구위원님의  
테마 인터뷰는 18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취업 확대를 위한  
취업 밀착케어

**내일로 불업**

꿈임없는 도전으로 쌓아가는  
인생의 행복

**날마다 레벨업**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행 이야기

#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려하게 빛나던 가을 잎은  
낙엽이 되고  
찬바람에 바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아쉽기는 하지만  
떨어진 낙엽들은 새로운 희망의 밑거름이 되겠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약을 준비하는 알찬 11월이 되시길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 월간 내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약을 준비하는  
알찬 11월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 Contents



###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 08     **톡톡톡**  
내 일을 만나보세요
  
- 10     **트렌드 인사이드**  
취업 확대를 위한 취업 밀착케어
  
- 16     **알아두자고용**  
취업지원 필요해?
  
- 18     **내일이 만난 사람**  
취업의 디딤돌  
국민취업지원제도  
-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선임연구위원
  
- 24     **정책모음, ZIP**  
취업 밀착케어  
취업지원 정책을 놓치지 마세요







## Chapter 2 내일로 불업!

- 34     뉴 스타트**  
꿈임없는 도전으로 쌓아가는  
인생의 행복  
- 김현 직업상담사
- 38     청년꿈터**  
커리어 성장은 지금부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수현 씨
- 42     쿿&쿿 오피스**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함께 이루다  
- 알파브라더스
- 46     더블어 세상**  
착한 세상을 위한 특별한 한 걸음  
- 주식회사 29일
- 50     고용노동 뉴스**



##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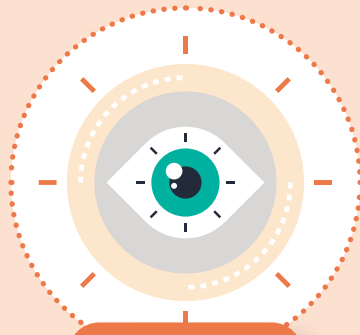
- 62     미디어 속 노동읽기**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 66     JOB툰**  
난나의 취준일기
- 68     디지털휴먼**  
세대를 이해하는 용어
- 70     주말에 뭐 할래?**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행 이야기
- 74     직장생활백서**  
업무 능력 향상 돕는  
BEST 협업툴 6
- 76     채널 MOEL**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소개
- 78     그린 리추얼**  
메일 삭제 챌린지
- 80     내일스타그램**



###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70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http://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http://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Chapter 1



# 트렌드

# 캐치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 내 일이 있는 내일

하루를 온라인 구직사이트 접속으로 시작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밀착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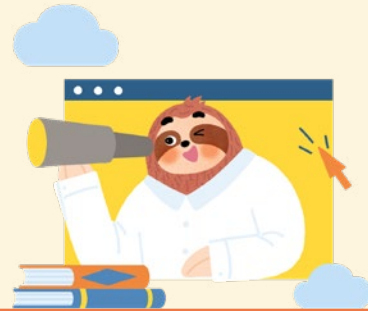
어떤 지원인지 찬찬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 '내 일'을 만나보세요

정부의 취업 밀착케어로  
'내 일(業)이 있는 내일'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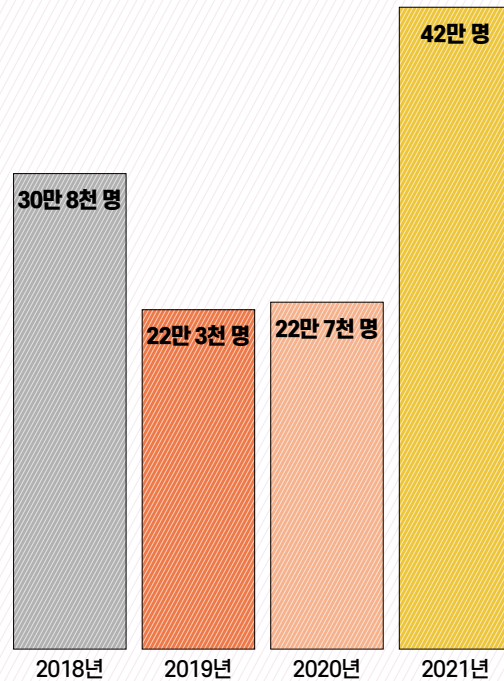


청년, 여성,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141만 115명**



국민취업지원제도(21년),  
취업성공패키지(18년~20년) 취업지원



### 청년 취업자 수



2019년

394만 5천 명

2020년

376만 3천 명

2021년

387만 7천 명

출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 여성 취업자 수



2019년

57만 8천 명

2020년

56만 7천 명

2021년

57만 7천 명

출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 장애인 취업자 수



2020년

22만 명

2021년

22만 1710명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취업 확대를 위한 취업 밀착케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취업 교육, 취업 상담 및 컨설팅 등  
취업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에 더 절실한 취업지원서비스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한 청년, 경력보유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 위기청소년 등 가구 단위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더욱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들을 위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무 경험을 쌓는 취업지원

최근 채용 트렌드는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이 우수한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선호했던 여러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형 인재가 아닌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경험이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늘봄이의 TIP

어디서 직무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 난감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아르바이트로도 경험을 쌓을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직무경험 #일경험프로그램







## 더 강화되는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2022년 채용 트렌드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메타버스, 온라인일 정도로 많은 기업이 메타버스 상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PC나 모바일만 있다면 어디서든 접속해 지원받을 수 있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서·산간 등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곳까지 지원서비스가 가능해졌고, 게다가 이동의 제약이 많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로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취업지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실시간 또는 양방향 소통으로 이뤄지고 있어 오프라인 취업지원보다 훨씬 참여도가 높고,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구인·구직자 모두 선호하고 있습니다.



### 늘봄이의 TIP

면접, 교육, 상담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온라인과 친해져 보도록 해보세요. 쉽게 설명해주는 책도 있고요. 단기 오프라인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 취업지원도 AI 개인 맞춤형으로

최근 AI, 머신러닝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채용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AI와 머신러닝 기술 기반으로 학생들의 전공, 진로, 학습 성향, 성취도 등을 분석해 맞춤 커리큘럼과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개인에게 맞게 추천하는 솔루션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 대학 등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세계 여러 나라들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독일: 개인 프로파일링을 통해 취업전략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까지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랑스: 구직자의 상황에 기반한  
사용자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 산업변화에 맞춰 더 확대되는 취업지원서비스

4차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계속 확대되고 강화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청년 대졸자가 졸업 후 취업까지 10.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작년 동 기간 대비 0.7개월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정부는 구직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졸업 이전부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심층 취업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  
#맞춤형취업지원  
#1:1심층취업상담



# 취업지원 필요해? 센터에서 One-Stop으로 지원해!

취업지원 정보를 찾는 것이 막막하고,  
여기저기 돌지 않고 한 곳에서 지원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애인고용공단 등 정부 기관은 각 대상맞춤  
One-Stop 지원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만나보세요.

## 일을 통한 국민복지의 실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 보험처 등의 기관이 참여해 고용, 복지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구직자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인 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능력개발비용, 교육훈련 비용 지원 관리 등 각종 고용보험과 관련된 것들을 관리합니다.

## 진로·취업지원 기능을 한 번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 접근성이 좋은 대학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진로·취업에 관한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 2년 이내의 청년 및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니 구직 청년이라면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http://www.youthcenter.go.kr))에서 가까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보세요.





여성의 새 일을 위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8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과 함께 꾸는 꿈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 지사에서는 구직장애인에게 개별 능력에 따른 적합 사업체를 알선해주며, 취업 후 원만한 직장 생활적응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즉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직업훈련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상의 구직 구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포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http://www.worktogether.or.kr))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취업의 디딤돌

##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의 주무현 선임연구위원은  
인력수급전망팀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전망체제를 구축한 인물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제도와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체제를 국내 최초로 체계화했습니다.  
주무현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노동 활동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_ 경제학 박사이자 한국고용정보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는 일과 노동시장 연구를 하다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연구위원으로 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인력수급전망팀장을 비롯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대책모니터링센터장을 맡아 일자리 사업 추진 애로 사항과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용대책모니터링과 고용영향평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사업평가체제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죠. 지난 20여 년간 일자리 사업 평가뿐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일자리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Q \_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부합하는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하면 연령과 성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미취업 청년,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경력단절여성(최근에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되었죠) 등을 말합니다. 취업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져도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류하죠. 이런 이유로 저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나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소득수준이나 실업 기간 및 가족관계 특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구를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Q \_ 2020년 코로나19로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 한 해 동안 839만 명에게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추진한 이유는 지원 대상이 무척 다양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중 가장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을까요?**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지구상에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세계 10대

교역 국가입니다. 세계 무역 기준으로 한국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이 매년 1조 원 이상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이 1백만 명이나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더 나아가 고령자 대상 공적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해 고용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 저소득 노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불가피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 대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일종의 잔여적 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생계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죠.



**Q \_ 일자리 지원 대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한 노동 활동을 하기 위해 기업이나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져야 일자리 기회가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실적이 나아지고 시장 경쟁력이 높아져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한 일자리 창출엔 불가피한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자리 사업은 지원 대상의 재취업이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데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는 복지이고,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최상의 수단이죠.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일자리 지원 대상은 스스로 반복적인 일자리 사업 참여에서 탈출해 자립 후 노동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컨대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수당은 노동시장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Q \_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 심각한 일자리 편차를 분석하셨습니다. 지역 간 일자리 편차는 또 다른 절망이 될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상층부로 분류되는 1차 노동시장의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하층부로 분류할 수 있는 2차 노동시장의 상대적 저임금 일자리는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집중되는 지역에 좋은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신 비수도권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만 비수도권에 남게 되는 것이지요. 비수도권의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소멸은 좋은 일자리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격차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역 차원에서 현지화되고 구조화

취업이 어렵다고 하면 연령과 성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미취업 청년,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경력단절여성 등을 말합니다. 취업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져도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류하죠.



일자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고,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입니다. 노동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자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중앙정부가 인구정책이든 고용정책이든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생산체제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경영과 전략을 담당하는 구상(conception)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생산기지 또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으로 지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전환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과 재정지출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재정 분권’을 실현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에 대해 철저하게 평가받을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른바 고용정책에서 자율과 책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Q \_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또는 구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중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이후 구직활동과 생계비 보조를 위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고용보험





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죠. 이런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일자리 지원 대상 일자리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3차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실업자 또는 구직자는 구직급여 수급을 종료하게 되면 1차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2차 고용안전망의 지원 대상으로 자격을 얻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1차 및 2차 고용안전망을 거쳐서도 취업하지 못한 이들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해 생계비 또는 소득을 보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실업 기간 장기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사업의 회전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직 활동과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것은 모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Q \_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평가해 주신다면?**

고용노동부는 참여자의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역량평가를 개편하며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일경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과 고용안전망은 일자리 지원 대상의 단순한 소득 유지나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 통합정책인 셈이죠. 일자리 사업을 노동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사업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계층 간 통합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_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해 가져야 할 역량이나 마음가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랜 기간 일하지 않을 경우 자존감이 약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의 원인이나 자신을 체계적으로 평가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해 취업역량평가나 심리상담을 강화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일자리 사업은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활성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지원 대상이라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본인 및 가족의 생활을 위한 소득을 직접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고,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입니다. 노동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자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 취업 밀착케어

## 취업지원 정책을 놓치지 마세요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아직 고용노동부의 취업 밀착케어를 만나지 못하셨군요.

고용노동부에는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고용안전망 속에서 당당히 어깨 펴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취업촉진  
지원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  
보험제도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국민취업  
지원제도

## 취업촉진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활용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취업촉진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저소득자, 실직자 및 일반 구직자를 지원하며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활용해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채용박람회,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사업명             | 사업내용                                                                   | 수탁(대상)기관                  |
|-----------------|------------------------------------------------------------------------|---------------------------|
| 채용박람회           |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채용박람회 운영을 위탁하여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필요한 인재 채용지원 | 행사 개최 능력을 갖춘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민간기관의 심리상담사가 고용센터에 상주해 실직·구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사업자         |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고용센터 내 집단상담 프로그램(CAP@, 취업희망, 성실 등) 운영을 민간에 위탁                          |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사업자         |

## 취업촉진 자립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세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1일 상한액 6만 6천 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지원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1일 상한액은 7만 원입니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 휴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신청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만 6천 원, 총 180일 지원합니다.

휴업의 경우 1개월간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 단축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하고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를 지원합니다. 휴직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를 지원하고요. 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답니다.

##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은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종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첫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sup>①</sup>은 1)교대제 도입 확대 2)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지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시행할 시 인건비는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 원 지원되며 증가 근로자수 10명까지 지원됩니다.

둘째, 국내복귀기업<sup>②</sup>을 지원합니다. 이는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월평균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총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180만 원, 중견기업은 3개월 9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종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3개월 단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만 원, 중견기업은 120만 원 지원합니다.

넷째, 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8종)을 이수<sup>③</sup>한 사람'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180만 원을 6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①②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해야 함
  - 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 포함  
지원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등



## 고용보험제도로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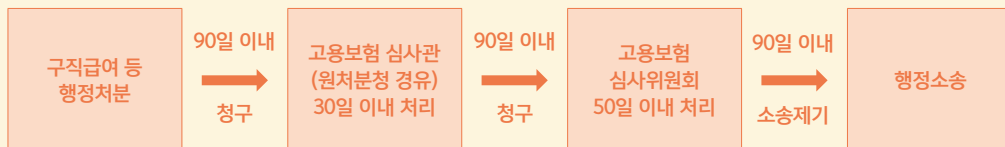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해 마련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가입이 가능했다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 2021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한 달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외국인 근로자,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보험료율(%)                 | 부담                                                |
|---------------|--------------------------------------------------------------------------|-------------------------|---------------------------------------------------|
| 구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1.8<br>(예술인·노무제공자 1.6%) | 노·사 각각 1/2씩 부담<br>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해당 |
|               | 유형: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                         |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해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150인 미만: 0.25           | 사업주                                               |
|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                                                   |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                                                   |
|               |                                                                          | 1000인 이상: 0.85          |                                                   |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로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심사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절차



## 구직자들이 놓치기 쉬운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예술인의 경우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1일 하한액은 6만 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며, 예술인의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의 경우 2만 6600원입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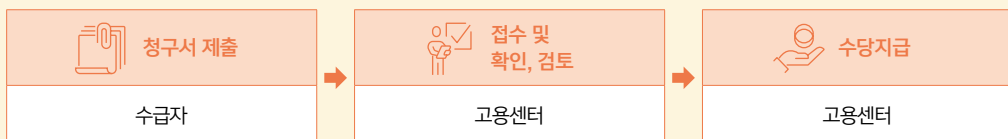
| 구분           |                 | 피보험기간 |                |                |                 |        |
|--------------|-----------------|-------|----------------|----------------|-----------------|--------|
|              |                 | 1년 미만 | 1년 이상<br>3년 미만 | 3년 이상<br>5년 미만 | 5년 이상<br>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br>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 50세 이상 및<br>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한 지 12개월이 지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액에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당신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먼저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 총 300만 원)을 지급해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구직자가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구직자는 반드시 취업활동계획대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되는데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으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필요요건 |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Ⅰ 유형 | 요건<br>심사형 | 15~69세<br>(청년은 18~34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br>100일(또는 800시간)<br>이상                  |
|      | 선발형       |                        | 중위소득 60% 이하<br>(청년특례: 120%) | 4억 원 이하<br>(청년특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br>100일(또는 800시간)<br>미만<br>(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
| Ⅱ 유형 |           |                        |                             | 중위소득 100% 이하<br>(청년: 소득제한 없음) | 무관                                                |

지원자격은 I 유형과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
| I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층상담: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li> <li>취업지원: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x6개월)</li> <li>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li> </ul>                                                         |
| II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li> <li>(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li> <li>(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6개월)</li> </ul> <p>*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 (월 28.4만 원x6개월)<br/>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저소득층, 특정계층)</p>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워크넷(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

# 내 일 로

# 부



# 업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수십, 수백 번의 고민을 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곧, 선택하지 않은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후회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선택 자체가 최선이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 끊임없는 도전으로 쌓아가는 인생의 행복

김현 직업상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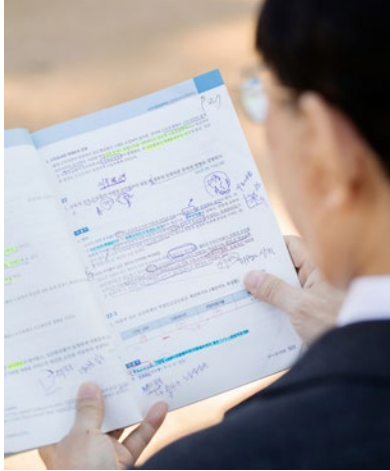
직업상담사 김현 씨는 자기계발의 원동력이 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세 번 활용했습니다.

그는 거침없는 자신의 도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만 74세, 적지 않은 나이지만 아직도 매일 새로움으로 가슴 뛰다는 김현 씨를 만났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일하고  
‘퇴직’이란 것을 하니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주는  
해방감이 참 좋았어요.  
은퇴를 했던 2004년에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도  
없을 때였죠.

#### 퇴직 이후,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다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남달랐던 김현 씨는 젊은 시절, KBS TV의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방송국 일을 하며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남다른 경력까지 쌓은 김현 씨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자 밤낮이 없는 방송국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1980년부터 2004년까지, 2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 학사지원부에서 일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복유럽 식품 최고 경영 CEO 과정을 연수하고 미국 USC, UCLA 등 UC 7개 대학의 진로상담을 연수하며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그도 퇴직 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어렵פות하게나마 “설마 일을 못 하겠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 직장에서 25년, 두 직장을 통틀어 30년을 넘게 일하고 ‘퇴직’이란 것을 하니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주는 해방감이 참 좋았어요. 은퇴를 했던 2004년에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도 없을 때였죠. 저 역시 두 번째 인생이나 새로운 시작 같은 것보다는 우선 일에서 해방됐다는 마음이 컸어요.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넘치는 시간에 어쩔 줄 몰랐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니 현실이 보이더군요. 살아갈 날은 많고 현실은 부족하니 일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차단속원, 시설관리인, 경비원부터 강남 입시학원 생활 지도원 등 단순 노무직을 몇 달씩 다니며 5년을 보냈어요.”

강남의 입시학원 생활 지도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인근에 있는 직업소개소가 김현 씨의 업무 공간에서 쉽게 보였습니다. 그곳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보며, 김현 씨는 처음으로 ‘직업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취업 문제를 고민하며 해외 취업 소개소에 함께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딸은 미국에는 수학이나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만  
불과한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진 않습니다.

과학 교사 28만 명이 부족하다는 정보에 임용고시 대신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딸과 함께 방문했던 해외 취업 소개소에서 김현 씨는 처음으로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을 마주합니다. 당시 사장이던 직업상담사에게 "그 일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먼저 따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전의 발판이 되다

김현 씨는 곧바로 을지로에 있던 직업전문학교를 찾아갑니다. 동료 수강생은 직장에서 수강지원금을 지원해 다닌 데 반해 김현 씨는 자비로 등록해 직업상담사 과정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처음으로 탄생했던 시기가 바로 김현 씨가 직업상담사 시험 준비를 하던 때입니다. 결국 2010년, 김현 씨는 초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남은 직업상담사 교육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업상담사에 합격 후 대림역 인근에 직업소개소를 창업한 김현 씨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본격적인 인생 이모작을 시작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대학교에서 강의를 수료하고 4주의 집체교육을 통해 교직과정까지 수료해 강의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구직자들이나 실직자들의 집단상담 시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기 위해 좀 더 전문적인 과정을 수료하고 싶었던 김현 씨는 2014년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육을 받기 위해 두 번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합니다.

강의를 나갈수록 중장년층들이 퇴직 후 막막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현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의 강의는 사내 퇴직 연수 교육보다 실용적이라는 칭찬도 종종 들었습니다. 점점 기업체나 기관 강의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습니다. 덕분에 민간 최초 퇴직예정자 대상 사회연대은행 KDB 시니어 브리지 아카데미 과정을 시작으로 2014년엔 50+재단 이모작지원센터 교육과정까지 수료했습니다. 2016년엔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앙코르커리어 1차 심화교육 역량강화' 목적으로 강의 섭외를 받고 강사팀을 손수 구성해 퇴직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NCS 직업기초능력 정보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오다 보니 저절로 기회가 오곤 했어요. 2019년 '제2회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종 수상을 했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당시 9명의 수상자에서 저를 제외하곤 모두 20~30대로 젊었죠. 저는 수년간 직업상담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년의 맞춤형일자리(직업훈련교사로 재취업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어요. 고급인력인 중장년의 직무 경험이 그냥 사장되거나 퇴장되지 않고 경력으로 직훈교사자격을 취득하거나 NCS 확인 강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아이디어였죠. 지금의 저처럼요."





### 끊임없는 도전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커리어

탄탄한 인생 이모작으로 매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김현 씨는 지난해 지인의 추천으로 유튜브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생의 위기, 새로운 도전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젊은 세대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현 씨는 유튜브와 1인 미디어 교육에 관심 갖게 됩니다.

지난 4월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75세 미만까지 지원이 된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영상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블로그 운영자 및 직업 정보제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로서, 직업전문학교의 유튜브에서 다수의 동영상 강의를 한 경험을 살려 더욱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제가 습득한 직업정보를 알려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활용한다면 복지혜택이 부족한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단순히 숫자에만 불과한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세 번이나 이용해 복지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자기계발의 원동력이 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없었다면 도전하려 할 때마다 조금씩 멈칫거렸을 겁니다. 많은 분이 저를 보고 힘내서 새로운 내 일을 향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커리어 성장은 지금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수현 씨



누구나 한번쯤 새로운 일을 꿈꾸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10년간 글을 써오던 김수현 씨는 ‘실패해도 돌아갈 곳은 없다’는 마음으로 커리어 체인지를 시도했고, 현재 IT회사에서 기획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하는 일을 포기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 도전이 즐거운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좋은 동료처럼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 여행자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찾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평생의 과제일 것입니다. 김수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시절 국제통상학을 전공했지만, 정작 이를 직업으로 연결하고 싶지는 않았 습니다. “학과 성적은 좋았지만, 전공만 공부에는 흥 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고민 하느라 졸업 후 1년 동안은 취업하지 않은 채로 지냈 었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며 아르바이트를 한 돈을 모아 다 녀온 해외여행. 그것은 그녀가 여행기자로서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공 과목을 들 으며 품었던 해외에 대한 꿈을,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기자가 되어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여행기자로 보낸 8년의 세월은 김수현 씨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행기자는 많은 이들의 꿈의 직업이지만, 모든 것이 낭만적이지는 않 았습니다. 매달 1~2회의 해외출장을 다니며 포기해 야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잡지 시장이 어 려운 시기였기에 늘 고용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고 결 국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 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 이후 여행 관련 마케팅 및 홍보 에이전시에서 그녀는 광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쉬는 동 안 김수현 씨는 함께 휴직하는 회사 동료를 통해 국 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관심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자 싶었죠. 틈날 때마다 내 스케줄에 맞는 강좌가 있는지 자주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 회사에 복귀할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준 건  
국민내일배움카드였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른다는 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지 못해 쉽게  
수강 결정을 할 수 없었어요.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  
는 만큼 신중하고 싶었거든요.”

프리랜서 일과 다른 공부를 병행하며 1년을 보낸 후,  
경험해본 적 없던 IT 회사 전략기획실 콘텐츠 에디터  
로 이직하게 됩니다.

#### IT 회사에서 시작된 두 번째 직업

에디터 일을 생각하고 입사했지만 다른 동료들이 하  
는 기획일에 조금씩 흥미를 느꼈습니다. 기획실 실장  
은 에디터 업무 외에 서비스 기획에 열정을 가진 모  
습을 좋게 보았고, 글 쓰는 일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며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었습니다. 한참 일에 매료됐을 때, 경영상의 위  
기로 회사는 폐업 위기를 겪습니다. 또 한 번 원치 않  
게 회사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이직을 해야 하  
는 상황, 이때 김수현 씨에게 용기를 준 건 국민내일  
배움카드였습니다.

다음 회사로의 이직에 대한 구체적 목표는 정하지 않  
았지만, IT 회사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워  
야 앞으로의 업무에 도움이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  
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용어를 알지 못해 소통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개발 강좌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개발 업무를 할 생각은 없었기에 비개발자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좌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쉬는 기간을 오래 둘 생각이 없어 3~4개월 이  
상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코스는 제외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강좌를 찾다 보니 ‘K-디지털 트레이  
닝’ 과정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전 회사 폐업으로, 구  
직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80퍼센트 이상 수료  
시,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준다는 말에 더 이  
상 미룰 이유가 없었죠. 마침 코로나19가 심했던 때  
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강좌는 처음이었기에 매  
일 8강좌씩 학습할 시 1주일이면 완료할 수 있는 비



교적 짧은 코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 기능과 씨름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수강 중 스스로 공부해보고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니 완강까지는 약 3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가끔은 ‘개발자가 되려는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죠. 그러나 지난 회사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기획자라면 자세히는 아니어도 개발자 및 디자이너와 소통하기에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과정을 수료하는 중 전 직장 동료가 이직 제안을 해왔습니다. IT 회사의 기획팀 소속으로서 서비스 기획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였습니다. 기획일을 해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 멈추지 않는 배움 그리고 도전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얻은 개발지식이 실무에서

쓰이고,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걸 깨닫고 나니 일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발팀과의 소통이 많았지만, 전보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개발팀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주눅 들어있지만 했었다면, 지금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죠. 가장 무섭다는 ‘안 돼요’라는 말을 덜 듣고 싶었는데,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어떤 것이 될지 또는 안 될지 조금은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현재 김수현 씨는 특허를 기술력 등급과 점수로 환산하여 투자보조지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과 협업하기도 하고, 기업의 경영 컨설팅 일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특허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일을 하다 보니 직접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몇 달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SQL을 공부하기도 했고, 지금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SQL 자격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한 발짝 더 나아갈 기회를 모색 중입니다. “지금으론 서비스 기획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기도 해요.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과정들이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야만 수료가 가능하죠. 취업 준비생이나 잠시 일을 쉬고 있는 분들이 서비스 기획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한 번의 커리어 점프를 꿈꾸는 김수현 씨. 현재로선 서비스 기획에 몰두하고 흥미를 느끼고 있지만,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직장에서 다른 업무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을 때, 원하는 직장 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 늘 도전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정책을 세우고 데이터를 보며 화면을 기획하는 게 믿기지 않아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준 건 국민내일 배움카드였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함께 이루다

알파브라더스



브랜딩의 가치를 알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회사  
알파브라더스는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도 등  
다양한 근무 혁신 제도를 성공시켰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는 비전 아래 2030세대가 모인 알파브라더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도와 기업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고자 노력합니다.

#### 엑셀러레이터 기업, 알파브라더스의 노력

알파브라더스는 스타트업이 성장 궤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사업기획, 디자인, 마케팅, 개발, 법률, 특허, 노무관리 등을 올인원으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기업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는 비전 아래 2030세대가 모인 알파브라더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도와 기업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고자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창업 초기부터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도입·운영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밌게 일할 때 훌륭한 프로젝트 성과가 나온다고 믿는 알파브라더스의 기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근로자 대표로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대표 및 이사님들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본부 UX/UI팀의 조연경 근로자 대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직원들이 어떤 불편함을 가졌는지 파악하고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후에는 이 해결책이 모두에게 합리적인지, 공평한지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를 이행하면서 생기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임원과 근로자들이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세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자인너들의 재택근무제도였습니다.

“당시 디자인너들은 멀리 살거나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 집중하면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부 회의를 통해 디자인너 재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출근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재택 후 업무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습니다.”



근무 시간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자율 출퇴근제와 같은 근무 혁신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웃풋도 챙겨 회사의 성장까지도 챙기고 있습니다.

#### 능동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일터

알파브라더스는 창업 초기부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인재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자율 출퇴근제로 일합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인 코어타임과 하루 8시간 근무, 2가지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어타임의 경우에는 팀 간의 협업과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정해 놓은 필수 근무 시간으로, 해당 시간대에 근무 중이지만 하다면 그 외에는 자기가 집중이 잘 될 때 일하면 된다는 기조입니다. 아침잠이 많다면 11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면 되고,

저녁 있는 삶을 즐기고 싶다면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기도 합니다. 오전에 잠깐 병원이나 관공서를 다녀온다는 이유로 반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알파브라더스의 또 다른 대표적인 근무 혁신 제도는 바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도입니다.

“금요일은 설령 근무 시간 8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오후 5시에 조기퇴근이 가능한 날입니다. 물론 다들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급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쳐 두고 조기퇴근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직원의 모습을 대표님께서 알기 때문에 더욱 믿고 조기퇴근제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무 태만이나 업무 공백의 우려는 없습





니다. 제도 시행 이후 ‘최대 52시간 근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은 초과근로 0%가 증명하죠.

이런 제도가 올바르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무환경과 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내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파브라더스의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 요소인 근무 환경과 소프트웨어적 요소인 사내 문화가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자유에서 시작하는 더 큰 성장

최근 알파브라더스는 더욱 넓은 공간으로 자리를 이사했습니다. 여기엔 근무 공간과 분리된 휴게공간까지 마련해 안마의자, 소파, 요가매트 등 직원들이 원했던 요소를 넣었습니다. 또한 실내정원을 가꿀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설치해 직원들의 신체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휴게공간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도서를 비치하고 강의를 구매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등 개인의 퍼포먼스를 향상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적 요소에 더해 우리는 임직원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사내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제도적 변화가 있다면 왜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 그 안에서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해서 직원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더욱 활성화

기 위해 몇 달 전부터 팀 간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워크숍, 세미나,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팀 단위로 참여하여 각 개인이 그리는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회사의 비전과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와 특별한 가치는 워라벨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왔고 창업 3년 만에 직원 수 480% 증가, 지난해 매출액 500%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내는 수출, 제조, 비대면, 데이터, 관광까지 5개 분야의 정부 지원 수출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동일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아웃풋은 퍼포먼스 곱하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일정량의 아웃풋만 보장된다면, 퍼포먼스를 늘려 근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는 저희가 말씀드린 회사와 동반되는 개인의 성장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죠. 저희는 개인의 성장을 장려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직원의 퍼포먼스를 늘리고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자율출퇴근제와 같은 근무 혁신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웃풋도 챙겨 회사의 성장까지도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파브라더스같이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동일시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 착한 세상을 위한 특별한 한 걸음

주식회사 29일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주식회사 29일은 합리적인 가격의 여성 위생용품을 국내와 해외 시장에 제공하는 여성 특화 헬스케어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다각적 차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조금씩 착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터란 회사와 직원 모두 만족하는 가치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두가 공통된 가치에 동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올바른 일터로 나아갈 수 없어요.

###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

약자가 외면받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6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한 ‘주식회사 29일’은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위생용품, 특히 생리대와 관련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준비하고 론칭하던 시기에, ‘깎창 생리대’ 이슈가 터졌어요.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취약계층 여성들이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죠. 대중들에게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29일의 홍도겸 대표는 창업 당 시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로 진정성과 이에 응답한 소비자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29일은 사회적 기업이 육성 창업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취약계층과 여성들의 건강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진정성 있게 선보였습니다.

“29Days의 생리대 패키지가 굉장히 예쁘고 참신하다고 많이 말씀해주시는데, 이는 생리대와 생리를 숨겨야만 하고 터

부시하는 문화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생리대 패키지에서 생리대 모양의 그림들을 모두 제거하고 폴리백 비닐 포장의 분홍색 디자인에서 탈피했습니다. 여러 차례 고객들의 의견들을 청취하여 보태니컬 디자인의 종이 패키지를 채택하였습니다. 환경을 위해 비싼 종이 패키지를 선택했고, 고객님들이 사랑하는 디자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특별한 노사와 고객 시스템 구축

홍도겸 대표는 해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취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을 보완하며 회사를 창업한 뒤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회사와 직원 모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도록 하고 싶었어요. 서로 보채지 않고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며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절대 야근하지 않고 일과 직원의 삶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워라벨과 양방향 모티베이션을 지향합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적절한 모티베이션을 제공하고





직원들도 회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자극제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9일은 노사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 환불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한 종류의 생리대가 모든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제품인 만큼 고객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은 29일의 정책입니다. 29일은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생리컵이나 면 생리대, 체내 삽입형 생리대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보고 어떤 제품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편안한지 사용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가 불만족했을 시 어떠한 이유에서든 100% 교환 및 환불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제품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일터란 회사와 직원 모두 만족하는 가치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두가 공통된 가치에 동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올바른 일터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29일이 다루려 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미션과 비전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란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일터가 되는 법이죠.”

사회적 기업답게 29일은 취약계층 기부 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사회공헌활동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29일은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10여 개 대학교 캠퍼스에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를 비치했습니다. 대학생 비영리 단체인 ‘십사일생’과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가 불만족했을 시 어떠한 이유에서든 100% 교환 및 환불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제품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함께 진행하는 이 사회공헌활동은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29일만의 특별한 활동입니다. 이 외에도 분기별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지원사업, 서울 시내 여자 중학교에 시범적으로 상비 생리대 비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진행 예정인 사회공헌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B2B 시장에서도 생리대 시장이 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기업과 공기업 및 정부 기관에서도 다양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회사 내에 상비 생리대와 위생용품을 비치해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 진정성 있는 헬스케어 사회적 기업

2017년 1월 출시한 반값 생리대 29Days 중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식회사 29일은 반값 생리대 중형, 대형, 롱라이너, 유기농 생리대 리얼코튼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에 이어, 초경시기의 청소년에게 좋은 ‘입는 오버나이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까지 연매출 10억 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식회사 29일은 또한 자신들과 같은 위생용품 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다양한 여성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페미니&패밀리 위생용품 플랫폼 29pick을 론칭했습니다. 지난 1월 론칭한 플랫폼 29pick을 통해 2만여 명의 고객에게 더욱 다양하고 품질 좋은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판로가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

“고객에게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반값 생리대 29Days, 유기농 생리대, 드림핏 팬티형 생리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생용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 고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29Days의 제품이니 상품성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더불어 저희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일단 구매해 응원하겠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감동이었죠.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안전한 생리대를 생산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 MOEL News

1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  
청년·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6일 공정채용 우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를 방문해, 공사의 공정채용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5일까지 진행된 '공정채용법 국민 설문조사'에 이어서 열린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공정채용법』 추진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담회가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공정채용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정·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중 최초로 3년 연속 수상한 대표적인 공정채용 선도 기관입니다. 공사는 자체 '공정채용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채용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채용 과정에 반영해왔습니다.

한편,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청년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발맞춰 그간 정부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민이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채용의 불투명성, 부정한 채용행위, 능력보다는 개인의 배경에 따른 평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불공정채용의 원인과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바람 등을 고려해 투명, 능력, 공감을 핵심 가치로 두고 공정채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 | 모집에서부터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의 채용 경향 조사 확대, 채용·직무 설명회 지원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채용’이 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능력** | 청년의 ‘직무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채용시스템’ 확산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직무별·채용단계별로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중심 채용모델을 확대 개발·보급하고, 기업별 밀착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한편,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부정한 채용의 금지와 제재를 명문화해 『공정채용법』에 규정할 방침입니다.

**공감** |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을 그려 나갈 계획입니다. 채용에서의 기업의 자율성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청년 등 구직자의 보호도 중요한 만큼, 이번 간담회와 같이 기업과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채용 우수 실천 사례의 비결을 공유하는 등 채용의 두 당사자가 수용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여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청년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근로 시간 자율 선택권과 같은 노동시장 개혁도 공정한 채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정식 장관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채용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청년의 능력에 집중하며, 공정채용에 대한 청년의 요구와 기업의 채용 자율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정채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MOE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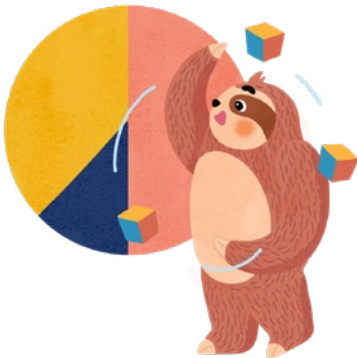
## 2

혁신을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포상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정부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직원과 기관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를 격려하며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과 간담회는 행정을 혁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정부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 (25점)에는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행정제도를 개선한 사례와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고용노동 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겨있었습니다.







정부혁신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혁신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 사진 한 장이 모여, 장애인의 눈이 되어요!'는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도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건물의 출입구나 장애물 정보가 누락되어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각각(各各)의 눈(視)을 모아 장애인 눈(視)이 되어 준다'는 개념으로 민간-공공-정부-지자체 등 51개 기관(약 12만 명 참여)이 협력하여 건물의 출입 경로나 편의시설을 촬영 후 전용 앱에 240만 건을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접근성과 보행 장애물 등 실질적인 보행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도보 내비게이션이 새롭게 구축되어 장애인들이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도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수상한 기관과 직원의 노력과 열정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토대가 됨”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하여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에 앞장서주길 당부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3

### 유연근무 우수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이스트소프트를 방문,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건의 사항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이사와 유연근무를 활용 중인 근로자 7명이 함께 했는데요.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 2명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근로자들이 자기 일정에 맞게 출퇴근을 하고, 업무 효율과 창의력 증대를 위해 주 3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차 사용 촉진, 반차/반반차, 장기근속 리프레시 휴가 운영 및 휴가비 지원 등과 함께 휴가 자기 결재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충분히 재충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준비 없이 시작한 유연근무를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지원 컨설팅을 통해 운영방안, 세부 계획 등을 체계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은 ①유연근무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고 업무 능력의 향상 ②자녀 돌봄이나 개인 취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일생활 균형 등 대체로 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시 가정 내 환경변수로 집중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유연근무가 기업별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4

###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특별대회가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대회는 사이버보안·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분야 7개 직종과 금형 직종 등 8개 직종에 35개국 133명의 세계 최고 선수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2년마다 한 번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전 세계 숙련기술인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대규모 국제행사인데요. 이번 대회는 당초 2021년 개최 예정이던 중국 상하이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끝에 지난 5월 결국 개최가 취소되면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을 스위스, 독일, 한국 등 15개국에서 9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분산해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열린 것입니다.



21년여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진행 기간동안 경기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자유롭게 경기장에서 관람할 수 있었으며 개·폐회식, 시상식 등 대회 주요 행사는 온라인 매체(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대회는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에 부합하게 사이버보안 등 첨단 디지털·신기술을 대표하는 정보기술 직종 중심으로 개최되어 상당히 뜻깊은 행사였다”며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한 각국 대표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이번 대회가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관심 제고와 국제 기술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삼성중공업에서 개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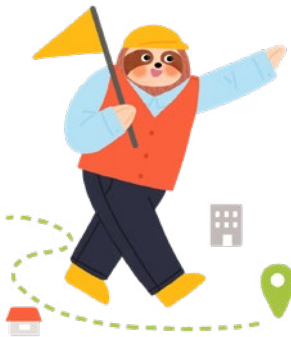
저탄소, 디지털 경제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기업이 협력해 직무 전환 등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6일 삼성중공업(경상남도 거제 소재)에서 제1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진행단계에 맞춰 직무 전환 훈련 등을 제공하는 모델로 올해 15개소를 신설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개소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업체 근로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선박에 대한 통찰력 제공, 정보통신기술 기반 3차원 설계도 활용 등 직무전환 교육 등 하반기에만 7개 과정, 480명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자율운항 등 선박의 지능화, 디지털 조선소 구축, 선박 연료의 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존인력의 고용불안과 원·하청간 기술 수준 격차로 인해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개소되면 대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개소를 선정하였고 2026년까지 총 35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조선업 분야 중심으로 산업전환형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 6

### 고용허가제 운영 관련 중앙 및 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 등 제도 운용과 관련해 각 지역의 목소리 반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월 13일,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외국인력 담당 국장급)들과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인력 도입 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한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기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입국이 연초부터 신속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각 지자체의 외국인력 수요 관련 의견 및 현장 애로를 듣고,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규모 및 체계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향후 외국인력 활용 및 고용허가제 운용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체계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기섭 차관은  
LG 에이머스(Aimers)  
AI 해커톤 시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월 7일, LG의 청년 AI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LG 에이머스(Aimers)의 AI 해커톤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자율주행 센서의 안테나 성능 예측’을 주제로 한 해커톤에서 대상을 거머쥔 ‘숨 참고 LG Dive’ 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습니다.

‘LG 에이머스’는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해 LG가 그간의 교육 노하우와 전문 기술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 국내 최고 수준 전문가의 AI 이론 강의와 해커톤을 통해 산업의 현장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개최된 AI 해커톤에는 LG 에이머스 교육생 등 1,745명의 청년이 참가해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고안해 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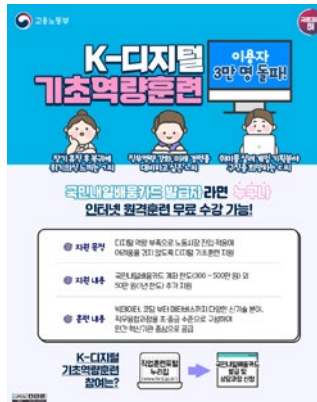
대상을 받은 ‘숨 참고 LG Dive’ 팀은 도메인 지식(자율주행 레이더 센서)에 대한 이해와 차별화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체인 모델링(Chain Modeling) 방식을 적용하여 최적의 추론 과정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해커톤에는 AI, 빅데이터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팀을 이루어 참가했으며, 해커톤 수상자 13명 중에서 8명이 사전에 LG 에이머스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이었던 점이 특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해커톤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팀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협업하며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8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훈련과정을 훈련생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하는 훈련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3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는 1년 동안 50만 원을 지원하며, 훈련 시에는 훈련비의 10%를 부담했다가 80% 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해 수료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100% 인터넷 원격훈련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자가 사업 첫해인 2021년 9,616명에서 크게 늘어 2022년 9월 말 기준 3만 4269명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청년과 중장년 여성 구직자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2022년 7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은 모든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훈련 인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말에는 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훈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40.3%, 여성이 59.7%로 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상태별로는 재직자(49.4%)와 구직자(50.6%)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이별로는 20대가 55.2%, 30대가 28.7%로 20~30대가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가 10.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훈련생들이 주로 참여한 훈련 분야는 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가 42.3%를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 디자인 12.8%,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10.1%였습니다. 훈련과정으로는 웹 개발, 앱 개발, 에스큐엘(SQL) 활용, 3차원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영상편집 등의 과정을 주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를 희망한다면, 직업훈련포털 누리집([www.hrd.go.kr](http://www.hrd.go.kr))을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 일단 따라하기

무언가 처음 시작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업적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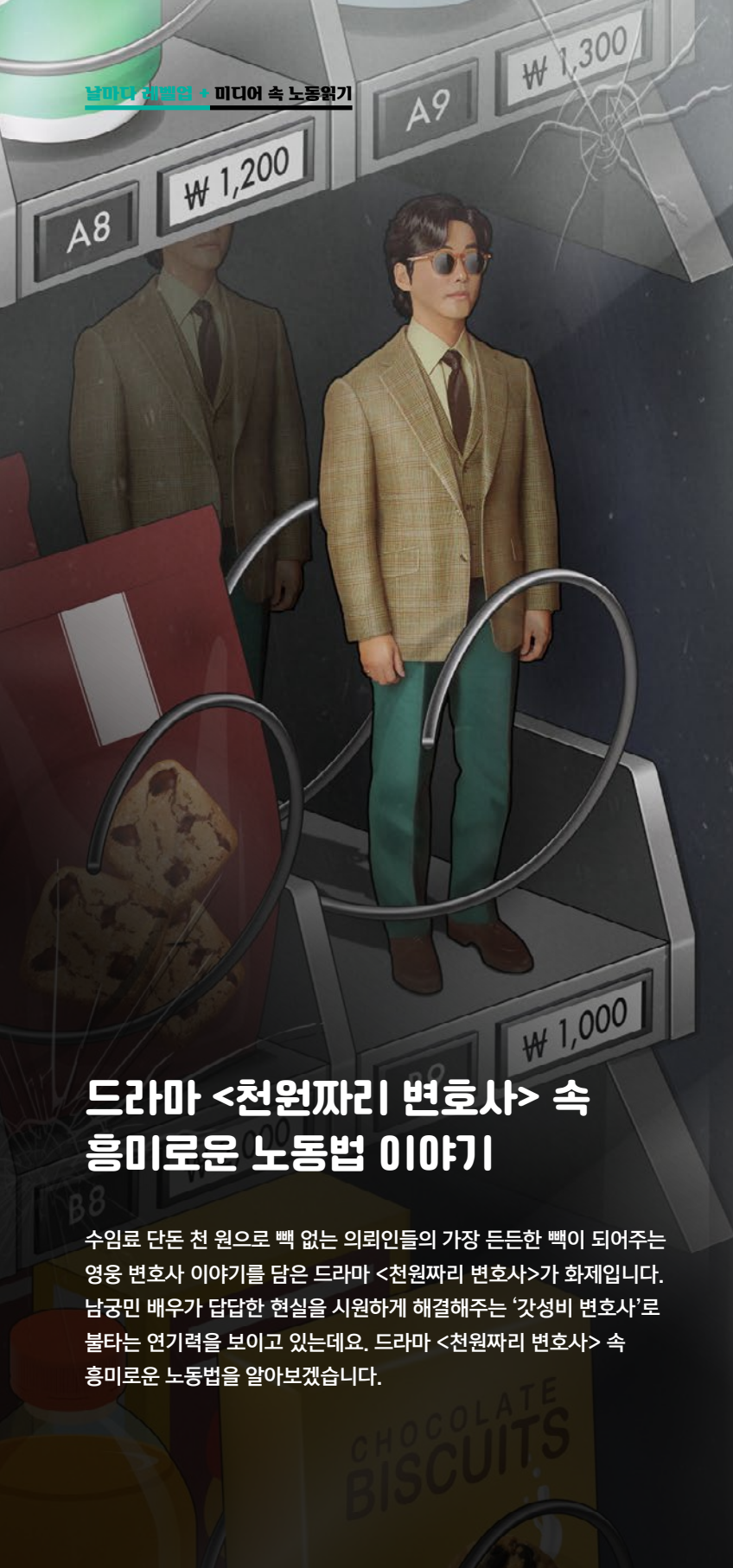
주눅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하나씩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따라하기’를 시작해 보아요.



##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수임료 단돈 천 원으로 뺏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뺏이 되어주는  
영웅 변호사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가 화제입니다.  
남궁민 배우가 답답한 현실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갓성비 변호사'로  
불타는 연기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속  
흥미로운 노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런 데서 시보를 하라고?” 백마리의 험난한 시보 도전기



월세도 못 내 집주인을 피해 다니며 전전궁궁하는 ‘천원짜리 변호사’ 천지훈의 허름한 법률 사무소는 대형 로펌의 오너 손주인 백마리에겐 먼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대형 로펌에 첫 출근을 했고 동료들은 모두 원하는 부서로 발령됐죠. 하지만 할아버지 백현무는 손녀인 백마리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슨 생각인지 천지훈의 법률사무소에서 두 달간 시보를 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백마리는 앙숙 같은 천지훈의 사무소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시보를 시작하죠. 백마리의 시보 생활, 과연 어떻게 전개 될까요?



### 여기서 잠깐!

본격 취업 전, 업무를 경험하고 싶나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무척 신중해야 하는 일. 때문에 취업 전엔 내가 원하는 직무가 나에게 잘 맞는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개발을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라면 선발 절차를 거쳐 1개월 체험형과 최대 3개월의 인턴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욕 고취와 직무능력 향상을 실현하세요!

## 갑질 피해 경비원은 남의 일? 경비원 돕는 히어로 변호사, 천지훈!



한 아파트에 사는 차명그룹 전무 천영배는 경비원 김만복을 하수인 부리듯 이용합니다. 주차를 맡기는 건 예삿일이고 골프가방을 맡기고 막말을 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습니다. 천영배의 차에 난 작은 기스를 김만복의 탕으로 떠넘기는 것을 보다 못한 김만복의 손자가 천지훈 변호사를 찾아가고, 천지훈과 백마리는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변호사 앞이지만 역시 나 거침없는 갑질을 이어가죠. 그런데 천지훈 변호사는 천영배의 차를 오히려 더 박살 냅니다. 그러곤 백마리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면 시보로 받아주겠다”고 돌아서죠. 난감한 백마리와 태연한 천지훈 변호사. 사건은 어떻게 풀릴까요?



### 여기서 잠깐!

취약 직종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 시설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하되, 교대 근무 및 휴식 형태, 휴식 주기, 동시 사용 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분 나쁠 땐 운전기사까지 때려?” 갑질하는 대기업 전무와 맞서는 천원짜리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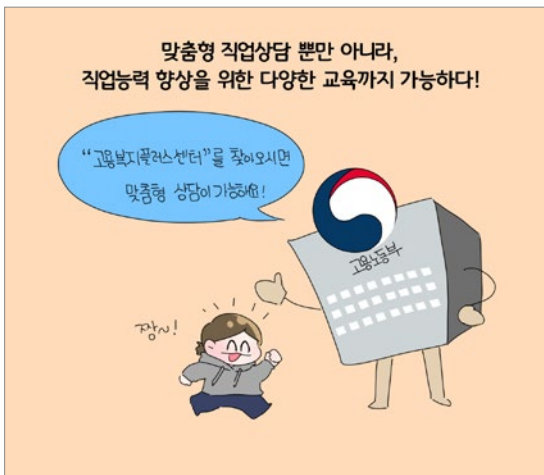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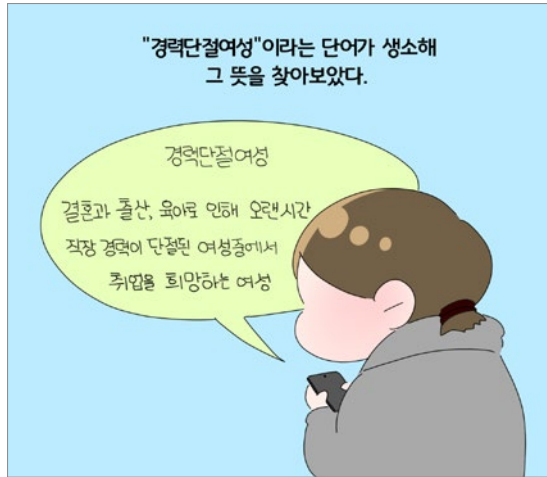
차명그룹 전무 천영배의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백마리는 우연히 천영배의 운전기사가 천영배에게 폭력과 모욕적인 처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심지어 천영배는 운전기사가 앞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었죠. 고심 끝에 백마리는 언론에 천영배가 자동차를 부순 경비원을 선처해주었다고 미담을 제보하고 천영배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일단 경비원 사건을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끝없는 ‘갑질’을 해온 천영배를 용서하지 못한 천지훈 변호사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한 차명그룹 회장에게 천영배의 퇴사를 요구합니다.



### 여기서 잠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견디기 힘든 대우를 받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해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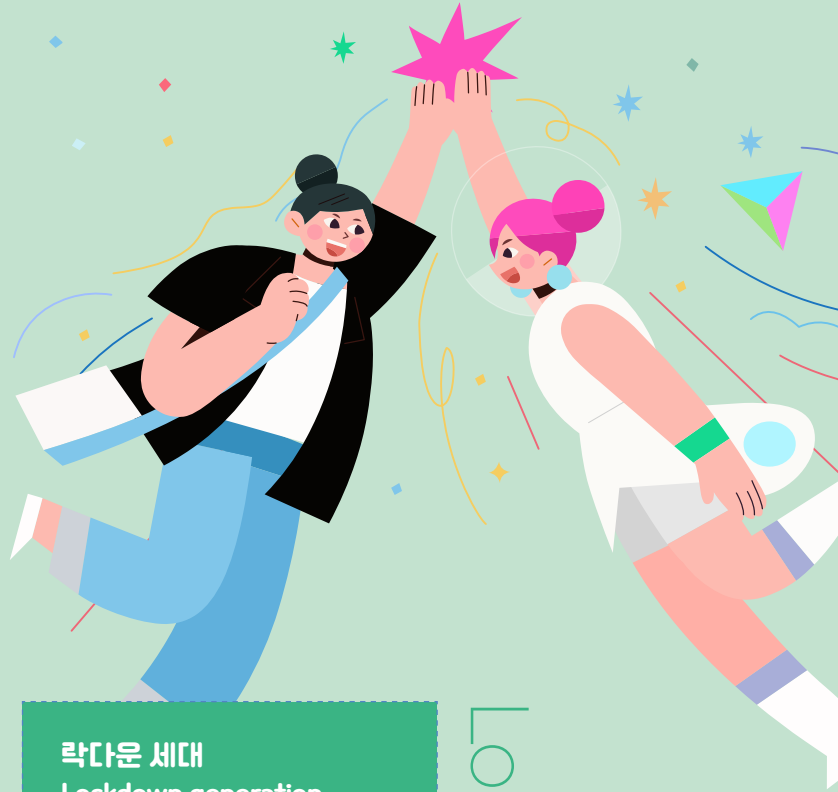






# 세대를 이해하는 용어

최근 뉴스를 보면 기존에 세대를 나누던 X, Y, Z, MZ세대가 아닌 다른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세분화되면서 새로운 세대 구분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시나요?



## 엑스틴 X-teen

X세대와 10대(Teenager)가 합쳐진 엑스틴은 '오렌지족', '야타족' 등 신인류로 분류되던 돌아온 X세대를 의미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시초로 10대 청춘의 환상을 가슴에 담은 X세대라는 뜻과 10대 자녀와 교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부모 세대라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4050세대인 엑스틴은 곧 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엑스틴 세대는 구매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시장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X-teen

## 락다운 세대 Lockdown generation

락다운 세대란 '락다운(봉쇄)'이라는 단어에 연령층을 뜻하는 '세대'를 붙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움직임이나 이동에 대한 제재가 청년 고용과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 기간에 암울한 시기를 보낸 청년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락다운 세대는 취업을 포기하는 등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봉쇄시키기도 하는데요. 스펙을 갖추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능력을 펼칠 자리를 찾지 못함으로써, 우울증을 겪거나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ockdown generation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Digital Native generation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디지털 기술을 마치 모국어처럼 사용하며 성장한 이들을 뜻하는데요. 대개 1980년 중후반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미디어 수용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이전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날로그적 취향을 버리지 못해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Digital Native generation

##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의 약자로 만들어진 신조어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확보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소득·고학력 전문직을 중심으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를 늘려 재정적 자립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인데요. 파이어족은 30대 혹은 40대 은퇴를 목표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재테크에 사용하며 자산 늘리기에 집중합니다. 부모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 자식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파이어족의 핵심은 이른 은퇴가 아니라 재정적 자립입니다.

##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초겨울이 오면 팬스레 낭만을 찾고 싶어집니다. 코끝에 찬 기운이 스치면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죠. 선선해진 날씨를 따라 여행 욕구가 높아지는 11월, 말랑말랑해진 감성을 충전해 줄 따스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행 이야기



**제주의 따스한 포옹**  
〈영화〉 계춘할망

제주의 에메랄드 빛 바다와 노란 유채 꽃밭 속에서 영화 <계춘할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매불망 손녀를 기다리는 계춘 할머니의 그리움과 손녀의 기구한 삶을 애뜻하게 엮은 휴먼 드라마죠. 할머니와 손녀가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는 잔잔하고 따뜻한 영화입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처럼 정겹고 따스한 분위기의 제주 자연이 등장해 제주로의 여행을 꿈꾸게 합니다.



**변산에서 만난 추억**  
〈영화〉 변산

영화 <변산>은 한국 부안의 변산을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무명 래퍼로 활동하는 학수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부안으로 향합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고향 친구들과 과거 흑역사들로 인해 학수는 예측 불가한 사건에 휘말리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청춘의 인생과 화려하면서도 정겨움 넘치는 변산의 풍경이 맞물리면서 그 시절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여행지 변산으로 떠나는 건 어떨까요?



### 진정한 행복을 향한 세계 여행

#### <영화> 꾸삐씨의 행복 여행

모든 것을 놓고 그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영화 <꾸삐씨의 행복 여행>을 추천합니다. 매일 같이 불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정신과 의사 핵터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야기죠. 그는 중국, 아프리카, 미국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며 자신만의 행복론을 완성합니다. 세계의 매력적인 풍경과 감수성 짙은 연출로 보는 이로 하여금 따스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입니다.



### 에든버러의 감성

#### <영화> 원 데이

성큼 다가온 추위를 따뜻한 사랑으로 녹이고 싶은 분들에게 영화 <원 데이>를 추천합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를 배경으로 20년간 이어진 커플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엇갈리지만 그래도 놓칠 수 없는 서로에 관한 애뜻한 감정이 에든버러 곳곳에서 피어오릅니다. '하루만 살아도 만나고 싶은 사랑과 20년간 반복된 스무 번의 특별한 하루'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에든버러의 풍경과 함께 가슴 시린 사랑을 만나보세요.



### 뉴욕의 선물

#### <영화> 비긴 어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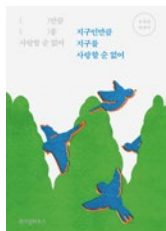
여행과 음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아닐까요? 영화 <비긴 어게인>은 남자친구를 따라 뉴욕으로 건너온 음악가 그레타와 스타 프로듀서였지만 해고된 댄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레타의 자작곡에서 음악의 진정성을 느낀 댄이 그녀와 함께 서로를 빛나게 해 줄 앨범을 제작합니다. 송효정 영화 평론가는 비긴 어게인을 '음악보다 공간에 주목하게 되는 감성 드라마'라고 평했습니다. 그만큼 영화는 뉴욕의 곳곳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 뉴욕 속 리틀 이탈리아

#### <영화> 레옹

마초남 레옹과 그의 곁에서 화분을 든 소녀 마틸다.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 장면입니다. 바로 레옹과 마틸다가 걸었던 곳이 뉴욕 속 리틀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거리'라는 뜻의 리틀 이탈리아는 실제 마피아의 거주지였기도 합니다. 정치 없이 떠도는 킬러 레옹과 복수심에 불타는 마틸다의 만남은 외로운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영화 레옹을 통해 싱송생송해진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지길 바랍니다.



### 여행에서 만난 특별한 순간

#### <도서>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소설 『보건교사 안은영』, 『시선으로부터』, 『피프티 피플』 등을 집필한 작가 정세랑의 첫 번째 여행 에세이입니다. 여행을 싫어하는 작가가 어쩌다 보니 친구를 찾아 뉴욕으로, 이벤트에 당첨돼 런던으로, 남자친구 유학을 따라 독일로 가게 되면서 특별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그의 시선과 고민도 담았습니다. 작가 정세랑과 함께 애정 어린 시선들이 담긴 여행의 순간을 만끽해 보세요.



### 함부르크에서 로마까지

#### <도서> 걷기를 생각하는 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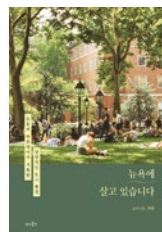
독일 유명 잡지 『슈테른』의 30년 경력 기자 올리 하우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아무런 계획 없이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듯 유럽의 곳곳을 누歩합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며 우리의 근육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작가의 말처럼 발길이 이끄는 대로 떠난 100일간의 특별한 걷기 여행기. 무한의 에너지를 가진 듯 매일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우리가 다시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 시칠리아 사람처럼

#### <도서> 오래 준비해온 대답

소설가 김영하의 추억이 담긴 두 번째 여행 에세이입니다. 그의 첫 번째 여행 에세이 『여행의 이유』에서는 여행과 일상을 잇는 아홉 개의 이야기를 전했다면, 이번 에세이에서는 내 안의 어린 예술가를 찾는 여정을 말합니다. 시칠리아에서 돌아온 후 교수직을 사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다시 시칠리아로 떠난 소설가 김영하. 그는 시칠리아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들,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 웅장한 유적과 지중해를 보며 자신의 내면으로 깊게 파고듭니다.



### 유튜버가 기록한 낭만적 풍경을

#### <도서>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의 일상을 감성적으로 기록한 유튜버 하루데이가 여행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낮선 이방인에서 뉴욕커가 되기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일상을 단정하고 담백하게 풀어내 독자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책에 실린 사진들은 뉴욕만의 감성을 불러 일으킵니다. 뉴욕의 일상에서 마주친 사소한 장면들을 카메라에 따스하게 담아내 독자들에게 여행의 설렘을 안겨줍니다. 책을 읽으며 잠시 동안 뉴욕의 낭만적인 풍경으로 빠져들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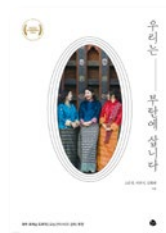




### 여행 산문의 정수

#### <도서> 자전거 여행1, 2

한자 문학의 아름다움을 현대 문학적으로 표현한 소설 『칼의 노래』의 작가 김훈.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간결함과 속도감을 주는 문체를 사용해 한국 문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소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에게나 쉽게 읽히죠. 그런 그가 자전거를 타며 돌아본 한국의 모습을 산문 『자전거 여행1, 2』에 담았습니다. 우리 삶, 문화, 역사를 특유의 담담한 문체로 기록해 여행과 독서의 즐거움을 전합니다.



### 행복의 나라

#### <도서>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

부탄으로 여행을 가는 한국인은 몇 있지만 부탄에 사는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책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는 부탄에 사는 한국인 중 세 명의 여자가 함께 쓴 부탄살이 이야기입니다. 행복에 집착하지 않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에 사는 사람들. 작가들은 부탄 사람들 본연의 삶을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환경·종교·경제·역사 등 전문적인 정보도 담겨 있으니 부탄으로의 여행을 꿈꾸는 여행자에게 추천합니다.



### 신라시대 마니아의 경주 나들이

#### <도서>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경주 여행

경주를 100번 넘게 방문한 역사학자 황윤의 경주 여행 답사 기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 분황사, 첨성대, 황리단길 등 여행 코스에 맞춰 경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작가의 감상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역사서의 주요 내용과 사진 자료도 수록해 신라시대 경주의 흔적을 깊이 있게 들려줍니다.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에 역사학자의 시선을 더해 더욱 인상 깊은 경주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 지팡이 대신 캐리어를 끌다

#### <도서> 진짜 멋진 할머니가 되어버렸지 뭐야

부산의 평범한 할머니는 사실 모험가입니다. 매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고, 젊은이들과 대화를 즐겨워하는 멋진 할머니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을 나이가 됐지만, 그 대신 여행 짐가방을 싸고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을 향한 신선한 시각과 흥미로운 통찰을 책 곳곳에 담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여행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하루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 노션



메모형 블로그 UI를 가진 노션은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툴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 명의 작업자가 한 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는 노션은 한국어 버

전 서비스 전부터 국내에서 사용됐습니다. 맥도날드나 나이키 등의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용 중인 노션은 쉽고 간편한 UI로 뉴스레터를 발급하기도 하고, 웹페이지형 구축이 가능해 개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용으로도 자주 사용되죠. SNS와 동일하게 멘션 호출을 하거나 댓글 창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편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슬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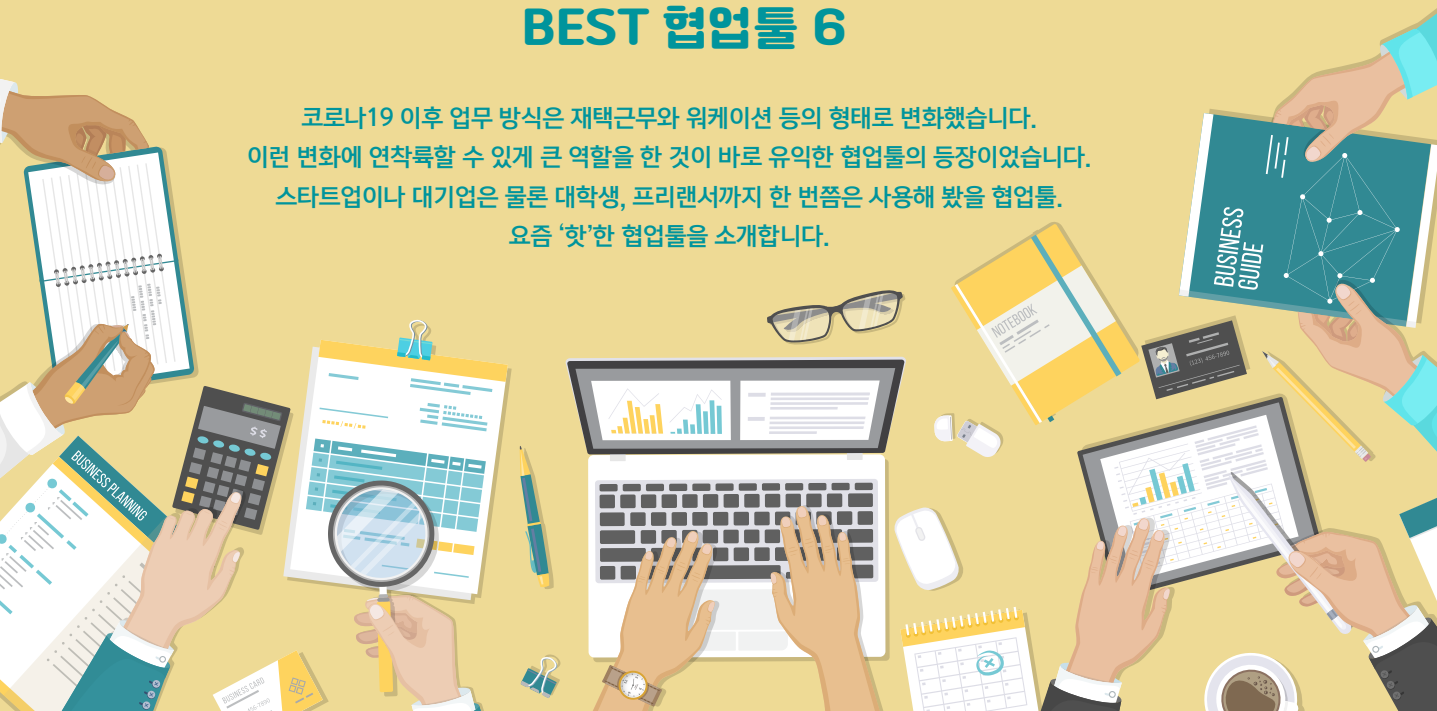


2013년 등장한 슬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메신저형 협업툴로 업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까지 이메일을 대체해 기업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에 맞게 현재 1,000만 명, 3인 이상으로 이뤄진 60만

개의 팀이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중인 협업툴이죠. 외부 앱 서비스 API연동이 자유로워 개발자들이 특히 사랑하는 협업툴이기도 합니다. 이메일 주소만으로 간단하게 팀을 생성할 수 있고 개발 중인 서버 상태를 체크하거나 메신저형 협업툴답게 쉽고 빠르게 연락이 가능해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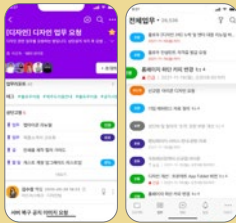
# 업무 능력 향상 돕는 BEST 협업툴 6

코로나19 이후 업무 방식은 재택근무와 워케이션 등의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연착륙할 수 있게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익한 협업툴의 등장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은 물론 대학생, 프리랜서까지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협업툴. 요즘 '핫'한 협업툴을 소개합니다.





## 플로우



프로젝트 관리부터 업무, 파일, 일정 관리까지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 UI의 협업툴 플로우는 사내 메신저, 간트차트, 화상회의를 웹브라우저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

니다. 협업툴 부분에선 브랜드 대상 1위를 2년 연속 지키는 국내 업무관리 협업툴인데요.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차분한 색감과 UI로 오랫동안 사용해도 지리지 않고 안정적이라 모니터를 오래 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업무용 메신저 기능도 함께 있어 누락되는 업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잔디



국내 협업툴 잔디는 실시간 메신저, 주제별 대화방, 영상회의, 문서관리 등 협업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해 원활한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협업툴입니다. CJ, 한샘, 아모레퍼시픽 등

30만 곳 이상 기업이 사용하는 잔디는 유료 버전의 경우 파일 저장공간 무제한과 메시지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데, 무료로도 충분히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인증받은 교육기관이나 NGO, 비영리단체의 경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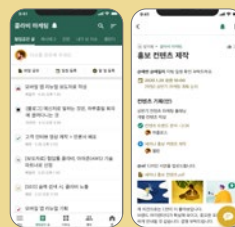
## 먼데이닷컴



시각적인 대시보드와 템플릿, 화려한 색감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먼데이닷컴은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협업툴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먼데이닷컴은 국내에선 쿠팡, 롯데, KB증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요. 다양하게 확장가능한 앱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어 여러 기능을 설치해 사용해볼 수 있고 브라우저 기반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페이지 전환 시마다 로딩바가 나타나고 다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먼데이닷컴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 콜라비



많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때 유용한 간트차트를 제공하는 콜라비는 협업툴 시장이 활성화되던 해외에서부터 인정받은 협업툴입니다. 2016년 구글 스타트업 그린드(Google Startup Grind)에서 우승하며 10만 이상의 회사와 팀이 이용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여러 명의 작업자가 한 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고 '뉴스피드'에서 업데이트 항목과 내가 작성한 문서를 볼 수 있어 시간 절약에 유용합니다. 단체 채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내 업무와 연관관계를 찾는 것에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럴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암호화로 이중 보안이 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소개

## 채널 moel에서는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부터 퇴직금이 안 들어와 전화했다가 되려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이야기와 근무조건이 다르게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연까지,  
쉽고 재미있는 정책정보를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 퇴직급여 vs 퇴직연금 차이점부터

계산법, 중도인출 조건, 공제 혜택 그리고 새로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까지!

알차게 준비한 랜선노동법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주영 노무사 X 진선미 노무사가 제대로 파헤쳐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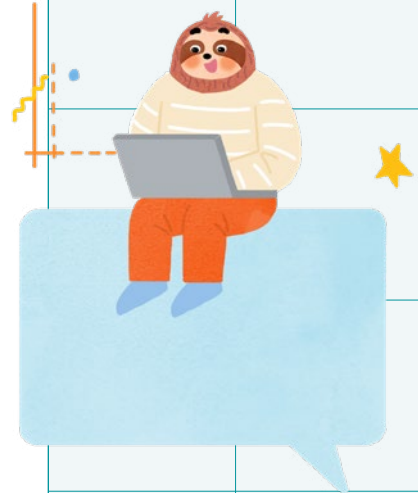
아직 고용노동부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youtube.com/user/moelkorea>

👍 좋아요와 👉 구독신청, 🔔 알람신청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 만능 근로계약서가 있다고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 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다고요?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립니다!



## 혹시, 퇴직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받아야 할 퇴직금 계산법부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계산법까지!  
안진명 노무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 쌓여있는 메일을 지우면 탄소가 줄어든다 메일 삭제 챌린지



쌓여있는 메일을 탄소계산기로 계산하면 1통 당 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쌓여가는 메일을 보관하려면 서버 전산망에 여러 데이터가 쌓여 데이터센터가 가동됩니다.

이렇게 센터가 가동되면 열을 식히기 위해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 의해 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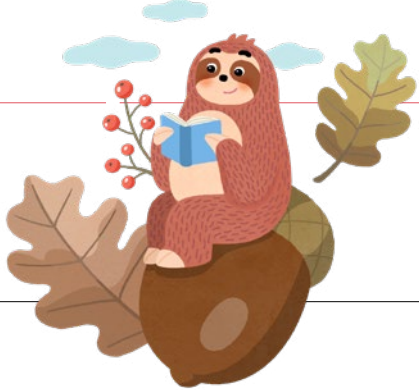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메일 50통씩만 지워도 탄소 1,036kg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메일함을 열어 쌓여있는 메일을 삭제해주세요.

잊지 말자, 메일함 관리!

# 11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1                       | 2                                                                                                   | 3                                                                                                                 | 4   | 5   |
|                                                                                   |                                                                                               | 11월은 메일함 비우기로 시작!       |                                                                                                     |                                                                                                                   |     |     |
| 6                                                                                 | 7<br>입동<br><br>겨울이 오면~                                                                        | 8                       | 9<br>소방의 날<br><br> | 10                                                                                                                | 11  | 12  |
| 13<br>10.20                                                                       | 14                                                                                            | 15                      | 16                                                                                                  | 17<br><br>메일함 비우기<br>중간 점검!<br> | 18  | 19  |
| 20                                                                                | 21<br><br> | 22<br>소설<br><br>눈이 올까요?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br><br>마지막날까지<br>열심히 비워요!                                                                        |                               |     |     |



11월 챌린지 캘린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가지씩 우리의 내일을 위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11월 챌린지 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 #월간내일 #그린리추얼 #11월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추천을 통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 #내일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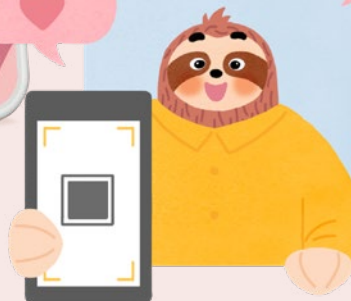
이번달  
늘봄이 이야기

직업능력개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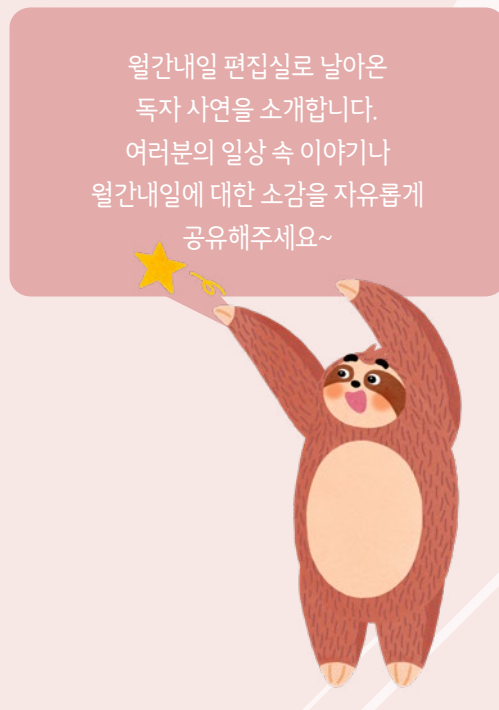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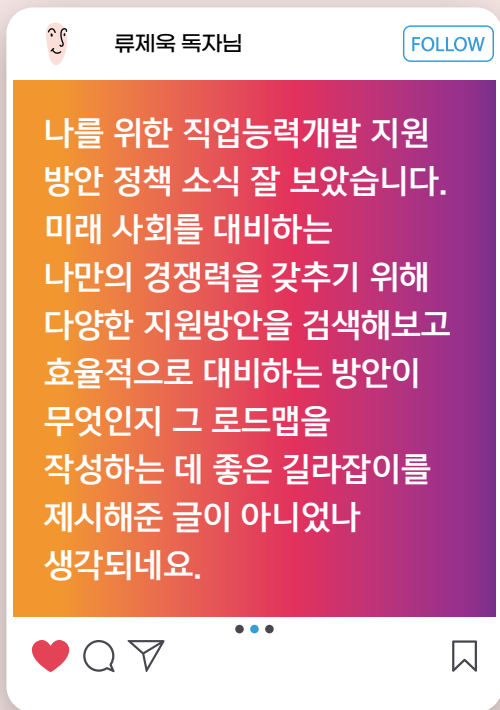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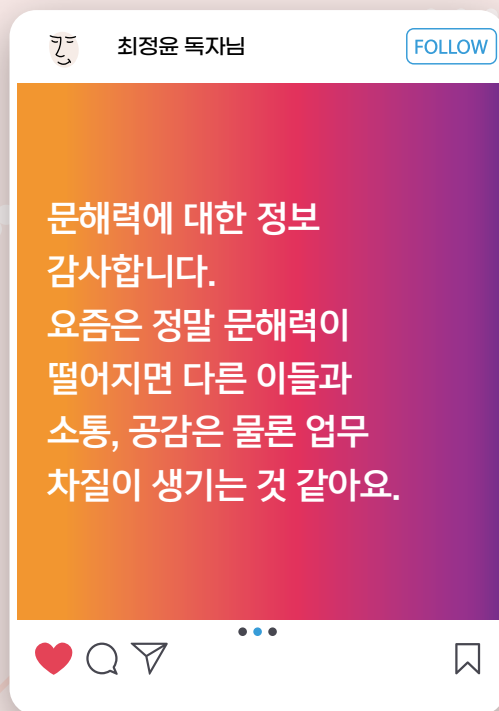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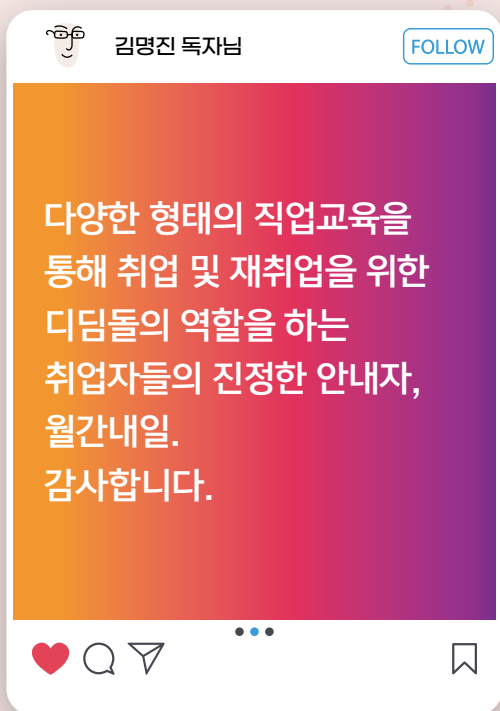
고용뉴스

주말에 뭐할래

REVIEW



11월호 그린리추얼  
쌓여있는 메일 삭제 챌린지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2022년 11월호

# 애독자 모의고사

모든 해답은 <월간내일> 11월호에 있습니다.

1.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해 마련하는 기금으로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가입이 가능했지만 2020년 12월부터는 예술인, 2021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 ① 의료보험제도
- ② 고용보험제도
- ③ 실손보험제도
- ④ 자동차보험제도

2. 고용노동부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021년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된 정책은 무엇일까요?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 ② 국민실업지원제도
- ③ 국민고용지원제도
- ④ 국민복지지원제도

**Hint** 정책모음집을 살펴보세요.

## 모의고사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 ① <월간내일> 정책모음집을 꼼꼼히 정독한다.
- ② 웹진([www.labor21.kr](http://www.labor21.kr))에 접속한 뒤 이달의 주제 맞추기를 눌러 정답 번호와 함께 소감을 남긴다.



정답자 중 20명을 선정해 맛있는 디저트 쿠폰을 드립니다.

모의고사 응시기간 : 11월 7일(월)~11월20일(일)

모의고사 합격자 발표 : 12월 1일(목) 개별발표

상품 : 스타벅스 디저트 쿠폰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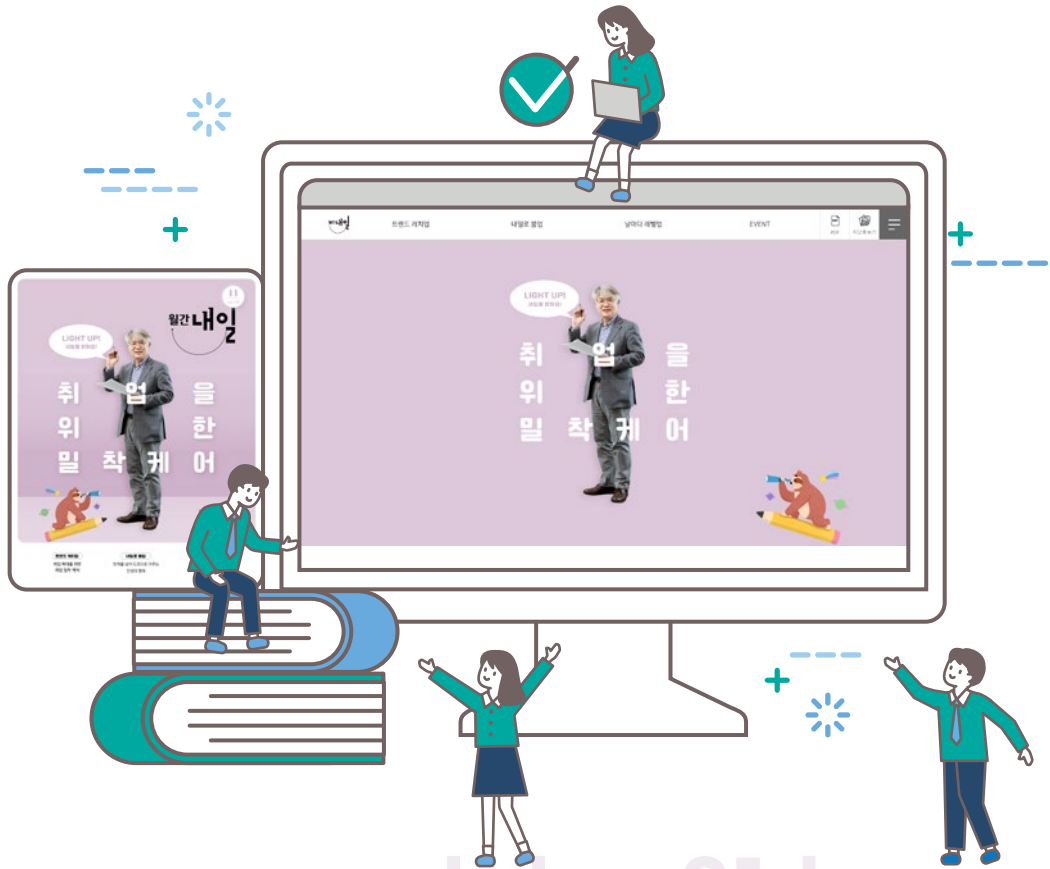
### 10월 이벤트 당첨자(\*당첨자는 가나다 순)

공지우(9595) 김명진(1853) 김선우(4254) 김소라(4787) 김용준(5248) 문소희(7587) 배영한(8350)  
임윤(1441) 이세진(8387) 이순정(2208) 이민우(4440) 임정숙(7549) 임성희(3070) 전지혜(0037)  
최영수(8709) 최주희(3858) 최진(8709) 한혜진(9699) 함진주(9180) 황재인(9380)



# 〈월간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www.labor21.kr](http://www.labor21.kr)

## ① 인쇄 잡지로 만나기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 ②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